

【서 평】

석탄체제의 흥망사: 서평, 빅터 샤우(Victor Seow)의
『탄소 기술관료제: 근대 동아시아의 에너지 체제들』
Carbon Technocracy: Energy Regimes in Modern East As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

한석정*

1960년대 필자의 유년시절 풍경이다. 마산의 고향 집 근처에는 석탄으로 가동하는 거대한 은빛 화력발전소가 있었다. 뒷날 수출자유지역, 한국철강, 창원공단 등이 들어서 마산-창원지역을 공업도시로 변모시키기 이전에 이 발전소는 오랫동안 신흥 마산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따끔 석탄재를 날려 보내 우리 동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시커멓게 퇴색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또한 이따금 고장이 나서 온 세상을 (지금의 북한처럼) 암흑천지로 만들곤 했다. 촛불이 당시 가정 상비품이었다.

그 이래 한국인들의 에너지원은 산에서 눈치껏 베어오던 나무 땔감에서 석탄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로, 드디어 원자력으로 진화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을 좇느라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의 원전산업이 붕괴하고 대학의 관련학과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사정이 보도되었다. 새 윤석열 정부는 보란 듯이 “어리석은 과거의 정책을 뒤엎고 한국 원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한다. 때마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서방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를 끊어 에너지 대란을 초래했다.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 금지로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나 중국, 인도가 그 구매자로

* 동아대 명예교수.

나서 경제재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반러시아 시위나 정서를 계기로 화석연료 금지 운동도 출현했다. 이렇듯 에너지는 국내외에서 첨예한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시의적절하게도 탄소 에너지가 지탱해준 동아시아 기술관료 체제에 관한 빅터 샤우(蕭)(싱가폴 화교 출신의 하버드대 교수. 중국어 편인 표기로는 Xiao)의 역작을 접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 대상이 만주요, 해방전 카프(KAPF) 작가 한설야가 “탄광 왕국”이라 불렀던 세계 최대규모의 무순(撫順)이다. 김재용이 발굴한 한설야의 일본어 소설, 『대륙』은 만주의 가능성(재만 아시아인의 협력의 장으로서의)을 묘사한 만주문학의 절편이다.¹⁾ 해방 후 만주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통에 적잖은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무순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다행히 유수정, 김창호 등 우리 만주학회 연구자들이 독보적으로 연구를 개척했다. 전자는 한설야가 무순에 대해 남긴 귀중한 『합숙소의 밤』의 한글판과 일본어판을, 후자는 이것과 중국인의 한 작품을 비교 분석했다. 근래 이동진은 일본의 전후 명작, 『인간의 조건』의 무대인 안산 철강공장(아울러 푸순 탄광)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의 규모와 미묘한 위상(피지배자인지 혹은 중간자인지의)을 파헤쳤고, 윤휘탁은 무순의 노무체제와 민족체제에 집중했다.²⁾

빅터 샤우의 책은 무순 연구의 완결판이다. 그는 무순 탄광 개발의 역사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것과 동아시아의 정치체제인 기술관료제(technocracy)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석탄이 영국을 포함, 서구의 근대, 즉 산업화의 추동력으로서 자리매김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기술자 중심의 정치적 장치를 초래했음을 주장한다. 무순 탄광은 체제는 달랐으되 러시아, 일본제국, 전후 중국 공산당정부에게 공통적으로 기술관료제의 비전을 가능케 한, 혹은 국가주의적 목표를 향해 과학, 기술을 동원케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중국, 일본의 근대 지도자들은 영국 산업혁명의 성공에 미친 이 화석연료의 공헌을 절감, 때마침 발견된 무순 탄광

1) 한설야, 2003, 「대륙」(1939), 김재용 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2) 유수정, 2009, 「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 『만주연구』 제9집, 만주학회; 김창호, 2016, 『만주연구』 제22집, 만주학회; 이동진, 2021, 「노동자에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으로?」, 『만주연구』 제31집, 만주학회; 윤휘탁, 2022,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성 표상-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제와 민족관계」, 『만주연구』 제33집, 만주학회 참조.

의 채굴에 매진했는데, 이것은 서양과 어깨를 겨누기 위한 국가 전략이었다. 1930년대 중국국민당과 전후 공산당은 “일본제국주의의 약탈”을 규탄하면서도 무순 탄광에 대한 기대감, 경제의 국가통제, 과학기술주의, 국가주의적 목표, 중단없는 채굴(끝없는 재난과 고갈을 초래한)에서 대동소이했다는 것, 즉 일본 제국주의를 답습했다는 것이다.

하바드대에서 과학사를 강의하는 빅터 샤우의 전문성, 즉 화석연료의 생성사, 불순물 처리 방식, 열효율, 세일오일, 액화탄 등 석탄의 종류와 처리, 노천갱, 갱도 구조, 작업 여건에 대한 식견을 통해 무순 탄광의 내부가 세밀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마치 지하갱도에서 직접 이뤄지는 관찰, 증계를 통해 (혹은 전문과학 TV 방송 프로그램을 방불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 과학방송(?) 뒤에는 만주의 근대사를 포함, 풍부한 역사적 탐구가 돋보인다. 그의 연구는 19세기 말 청조로부터 허가권을 획득한 중국인 사업자의 채굴에서 시작해서, 20세기 초 그것을 탈취한 러시아인들에 의한 본격 탐사,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제국의 점령과 남만주철도회사를 통한 대대적 발굴, ‘석탄을 통한 선진국 만들기’, 해외팽창(만주사변과 만주국 건설, 중일전쟁, 미국과의 운명적인 대결인 태평양전쟁에까지)을 위한 ‘결전의 증산정책’, 그것을 뽑칠 정도의 전후 공산당의 증산 드라이브, 즉 노동 영웅 만들기를 통한 기록 갱신과 자원 고갈 등 약 1세기의 동아시아 에너지 체제로 두텁게 뻗어 나간다.³⁾

책 제목은 티머씨 밋첼의 히트작(좌파 인사들의 바이블 격이 된), 『탄소 민주주의』(*Carbon democracy: Political Power in the Age of Oil* (London: Verso, 2013))에서 온 듯한데 내용은 사뭇 다르다. 후자에 의하면, 20세기 초 서구(특히 영국)의 탄광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단결, 총파업을 벌이면서 집회의 자유, 참정권과 사회보장의 확대를 쟁취한 것에 비해,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그런 민주적 집단 행동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석탄 시대에 파업 노동자들은 탄광과 석탄 소비지역인 대도시의 근접성을 이용, 부두와 철로의 봉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

3) 책에 대한 챗터별 요약과 자료 소개는 사우교수의 제자인 이종식의 글, 2022, 「Victor Seow, Carbon Technocracy: Energy Regimes in Modern East Asia」, 『한국과학사학회지』 제44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회 참조.

다. 이에 비해, 석유 시대에는 거미줄 같은 도로망과 송유관이 건설되고, 하역 노동자들을 우회하는 대형 운송선(탱커) 등 소비지역까지의 인프라가 여러 지점으로 분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혹은 민주주의)이 효과적으로 저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석탄 곧 민주주의라는 등식을 내세우면서도 밋첼의 책은 지면의 대부분을 석유 이권에 눈이 먼 서구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카르텔 활동,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 전략(쿠테타를 통해 고분고분하지 않은 중동국가들의 전복까지 구사하는) 등 영국,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에 할애한다.

이에 비해, 빅터 샤오의 책은 제목과 내용의 치밀성, 동아시아 체제의 특징에 집중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본제국의 석탄에 대한 강박 관념을 추적한 것은 큰 공헌이다. 대제국을 꿈꾸는 일본의 야심과 과학기술, 해외자원에 대한 열망이 섞여져 석탄은 제국의 방패가 되었다. 무순 탄광이 무제한 매장되어있다는 이시와라 간지(만주사변 주동자)의 호언, 무순산이 일본업계에 위협이 된 역설,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조정, 만주국 설립 후 만주국의 급속 산업화(전기, 가스, 철강 등)를 위한 석탄 생산, 전시(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 소비 억제로 내핍, '저온생활'을 유도하는 협화회 활동, 전후 중국공산당에 억류된 일본 기술자들이 중국 산업화를 도운 역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만주 근현대사 전공자들에게 (일부 익숙한 내용이지만) 딱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지도자들은 19세기 말 이래 적자생존의 강박관념에서 시작, 기아의 탈출, 중진국,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염원하며 국제경쟁에 매진해왔다. 빅터 샤오가 확인했듯, 이를 위한 자원의 무한 발굴을 주도한 이들은 과학기술자 집단이다. 이들이 장악한 기술관료체제의 특징은 일찍 구르비치가 정리한 바 있다. 그의 '기술관료 파시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독일,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집트, 알제리아 등)에서 등장한 정치, 기술, 과학의 융합이라는 어떤 지식 형태이다.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 계획경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군사 조직과 친화력을 지니며, 소비니즘, 인종주의, 노동·농민 조직과 정당의 불허, 카리스마적 지도자 등의 특징을 갖는다.⁴⁾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지식인들이 미국의 테일러리즘과 독일의 전시 동원, 소련의 급속한 산업화에 영향을 받아 합리성, 효율, 과학,

기술에 매료되었다. 특히 기술은 ‘흥아(興亞) 기술’이라는 용어에 반영되듯, ‘대동아공영’과 ‘동아 신질서’를 내건 전시 동원과 식민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아련 무어가 지적하듯, 1930, 40년대에 수백만 노동력을 강제 동원, 조선과 만주국에서 중공업, 수력발전소, 댐, 교량 등 거대 토목사업을 벌리면서, 기술은 전시 파시즘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부흥에서 ‘테크노 내셔널리즘’이라는 변형된 얼굴로 이어졌다.⁵⁾

한국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이다. 공산혁명 후 소련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일본, 남북한, 중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중요 연결고리는 만주국이다.⁶⁾ 재니스 미무라는 만주국을 ‘테크노 파시즘’ 체제라 불렀다. 그는 일본 파시즘을 전근대적, 봉건적 체제로 규정했던 기존 연구들을 비판하며, 만주국 5개년 계획을 입안, 추진했던 전문관료들의 근대성, 즉 경영의 전문성, 합리성에 주목했다.⁷⁾ 만주국 초기 그 지배자인 관동군의 사회주의적 경향(재벌에 대한 혐오로 이들의 만주 진출을 막을 정도의)과 중기에 키시 노부스케 등 ‘혁신관료’의 산업합리화 정책(즉 경쟁 지양, 국가 개입, 기업의 장점을 살린 지도정책)은 묘한 조화를 이루어 만주국을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식 통제경제로 나아가게 했다. 이것은 만주국에서 사관생도와 하급장교 시절을 보냈던 박정희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5·16 직후 박정희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을 갈구했다. 그는 키시가 추진했던 만주국의 신속한 산업화, 통제경제의 방법론을 위해 키시에게 접근이 가능한 인사들을 찾았다. 반년 뒤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일본에서 키시를 직접 만났다.⁸⁾ 1960, 70년대 한국은 1930년대의 일

4) Georges Gurvitch, *The Social Framework of Knowledge* (N.Y.: Harper and Row, 1971).

5) Aaron Moore, *Constructing East Asia: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6) 줄저, 『만주 모던: 1960년대 한국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참조.

7) Janice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8) 이원덕, 2000,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 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50쪽.

본이나 만주국의 ‘발전국가’를 뛰어넘는 전방위의 이른바 ‘국가주도’ 정책이 판치던 나라였다. 테크노크라트들은 그 주역이었다. 이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효율 지상주의자들의 사고에는 민주주의적 합의, 복지의 확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공간은 크지 않았다. 밋첼이나 샤오의 책들은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굳이 책에서 흠을 찾는다면 일부 중국 공식자료를 여과없이 인용한 점이다. 예컨대, 석탄 채굴과 관리를 위해 난징정부가 조직한 국가자원위원회의 인력이 1937년 2천 명(1945년에는 무려 6만 3천 명 이상)이었다고 하는데(231쪽) 이것은 (광부들의 숫자를 합친듯한) 상당한 과장이다. 이야기가 약간 결가지로 뻗어 나가지만, 난징정부는 베이징의 기녀들에 대해서도 “매월 의무적으로 1회에서 4회씩 정기검진을, 무려 150만 명에 대한 접촉과 전방위적 예방책, 콜레라 발병시 45만 명에게 검역을 시행했다”고 했다.⁹⁾ 이것도 당시 인구나 방역수준을 고려하면 극단적으로 과장된 발표이다. 난징 시대의 근대국가 형성은 실패했다. 농촌의 치안은 민병에 맡겨 방치했고, 도시에는 국가-조폭(아편을 독점한 청방靑幫 조직)-경찰-사업가 간 밀접한 커넥션이 있었다.¹⁰⁾ 상하이 암흑가에 관한 프레드릭 웨이크먼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히틀러(Himmler) 타이 리(戴笠)가 이끄는 비밀 공작대(藍衣社)의 백색 테러-수천 명에 대한 불법 납치, 고문, 암살-가 횡행했다.¹¹⁾ 본격 위생은 중국이 아닌 의화단사건(1899-1901) 후 일본군이 점령한 텐진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군은 피식민 중국인을 타자로 설정, 잔인한 (그러나 효과적인) 위생사업을 밀어붙였다. 검문소, 화장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빈번한 검진과 사체 폐기 조치로 전염병을 막았다.¹²⁾ 동서양 제국의 위생정책의 동력은 도시 빈민, 피식민자,

9) 신규환, 2008,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 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아카넷, 158-190·271쪽.

10) Peter Zarrow, *China in War and Revolution, 1895-1949* (London: Routledge, 2005), p.253.

11) Frederick Wakeman Jr., *Spymaster: Dai Li and the Chinese Secret Serv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157-186.

12) 1939년에 무려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창녀들에 대한 정기적 검역 외에도 콜레라 발병 시 신속

불가촉 천민 등 식민지 내외의 타자를 상대로 발휘되었다. 경제나 방역, 치안 분야에서 난징정부나 전후 공산당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상당한 허풍이 들어있다. 그것은 체제의 차이와 무관한 느낌이다.

한 호별 검진으로 이곳을 가장 밀도 있는 검역지로 만들었다. Ruth Rogaski, *Hygienic Modernity: Meanings of Health and Disease in Treaty-Por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